

## 新羅 上代 왕실의 재생산 인식과 女性の 즉위 배경

Awareness of Reproduction of the Early Period of Silla Royal Family and the Background of the Women's Conquest

---

저자 (Authors)	이동윤 Lee, Dong-Yun
출처 (Source)	<a href="#">한국민족문화 (74)</a> , 2020.2, 165-200(36 pages) <a href="#">Journal of Koreanology (74)</a> , 2020.2, 165-200(3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a>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244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2440</a>
APA Style	이동윤 (2020). 新羅 上代 왕실의 재생산 인식과 女性の 즉위 배경. 한국민족문화(74), 165-20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5 13:0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上代 왕실의 재생산 인식과 女性の 즉위 배경\*

이 동 윤\*\*

1. 머리말
2. 왕실 여성의 활동과 지위
3. 新羅 上代 왕실의 가계 재생산 인식
4. 善德王과 眞德王의 즉위 배경
5. 맺음말

### <국문초록>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재생산의 핵심 구성원이다. 생물학적 생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 왕실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始祖廟 제사를 주관하였다는 阿老와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신라 초기 사회에서 여성의 사제적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제사의 주관은 시장과 유통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시장의 본래 모습은 원래 신성처이자 그와 관련된 제사의 제반 물품의 유통 장소였다. 이를 여성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신당서』의 신라 관련 기록, 여성의 사제적 성격과 더불어 이해한다면, 신라 사회의 여성들이 가진 지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들은 善德王·眞德王의 즉위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두 인물은 생물학적 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우수대학원생 논문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7018245@hanmail.net)

생산과 그다지 연관성을 가지기 어렵고, 대신에 그들의 이미지는 불교 교리의 재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어: 재생산, 신라 여성, 善德王, 眞德王, 여성 즉위

## 1. 머리말

한국 고대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했던 지분을 온전히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관련 사료들이 극히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며, 기득권층 남성애에 의한 역사 서술의 결과물이 지금의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많은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종래의 연구들은 고대의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시선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활동은 남성의 활동과 결이 달랐을 뿐, 온전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인간 사회의 재생산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많지 않은 사료에서 왕실 가계 속에 여성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음은, 후대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증명한다.

현재까지의 고대 여성 관련 연구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진행되어 왔다.<sup>1)</sup> 고대 여성의 역할을 차별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그들이 가진 신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신분이나 혼인한 상대 남성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었지만,<sup>2)</sup> 神母로서의 존재나 사제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인식하면서<sup>3)</sup>, 고대 여성의 지위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를 바탕

1) 지금까지의 고대 여성 관련 연구 성과들은 이미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된다. 강영경, 「한국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6, 여성사학회, 2007; 강영경 외,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2) 주보돈,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계명사학』 21, 계명사학회, 2010.  
3) 奎虎兪, 「韓國 古代의 女性」, 『한국고대사연구』 12, 한국고대사학회, 1997; 奎虎兪,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역사와 경계』 108, 부산경남사학회, 2018;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으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역시 파악되었다. 나아가 가족 구성 원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기도 하였다.<sup>4)</sup> 또 한편으로는 유교의 도입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를 밝힌 연구도 제출된 바 있다.<sup>5)</sup>

여성들의 지위는 보기에 따라 종속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지만, 여성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단행본들이 꾸준히 세상에 나오면서<sup>6)</sup>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극복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여성은 연구자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간된 『신라의 사회 구조와 신분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9)의 목차 구성에서 여성은 평민, 노비, 장인·상인의 다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대 여성에 주목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에 비하여 초라한 대우가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고대 여성의 활동에는 재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sup>7)</sup> 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을 하거나 향후 과제로 남긴 경우는 있으나<sup>8)</sup>, 그 이후로도 그다지 주목할 만한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당시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조명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식산업사, 2003;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國家祭儀)-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한국 고대 국가제 의와 정치』, 혜안, 2018; 李炫珠, 「新羅 王室女性의 稱號變遷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 4) 김영심, 「혼인습속과 가족구성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女性」,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5) 金柱珍, 「한국 古代 女性의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김영심, 「한국 고대사회 女性의 삶과 儒敎」, 『한국고대사연구』 30, 한국고대사학회, 2003.
- 6)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주진오 외 5명,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정현백 외 5명,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 무늬, 2016; 국사편찬위원회 편저, 『'모'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2011.
- 7) 여성학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참고로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에 '여성 재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1000건 이상이 확인된다.
- 8) 김영심, 「한국 고대사회 女性의 생산활동」, 『한국사연구』 149, 한국사연구회 2010, 32~33쪽; 한국 고대 여성사 연구 현황과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 2014, 573~578쪽. 여성의 재생산에 주목하지는 않던 김영심으로부터 제기되었는데, 본고에 크게 참고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하겠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 경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신라 上代 왕실의 재생산 인식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왕실 여성의 지위를 밝히고, 여성 왕의 즉위 배경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신라 사회 속의 가계 재생산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은 생산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후대를 낳아 기르는 것의 반복이라던가, 음식을 먹고 노동을 하는 과정의 반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sup>9)</sup> 고대 사회는 이러한 재생산 구조 속에서 발전하였고,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성과 재생산 구조의 밀접한 연관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라 여성의 활동과 이로 비롯된 지위를 살피고자 한다. 이미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는 신라 상대의 두 여성 왕들이 어떻게 즉위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신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여성’을 바라보는 당대의 인식과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 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재위 중의 왕의 활동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기억되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9) 재생산이라는 용어는 정치·경제학 분야와 여성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전자에서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분석의 과정에서 생산, 분배, 소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한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 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과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자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노동력 재생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과 수유, 가사노동 등의 활동이 노동력 재생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김정선,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0~13쪽).

필자는 이러한 두 관점이 따로 떨어져있지 않다는 입장에 서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이로써 창출된 노동력은 경제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적인 재생산을 배경으로 생물학적 재생산 역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두 관점이 한 사회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 속에서 공존하고 있어,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2. 왕실 여성의 활동과 지위

여성은 고대부터 신적인 존재로 많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신라에서도 왕실 여성들은 성모나 신모와 같은 모습으로서 신성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老嫗와 같은 인물은 신이한 인물을 찾거나, 기르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위가 낮았다거나, 엄격한 차별 속에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된다.<sup>10)</sup>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되어 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 신라의 宗廟制를 살펴보면, 제2대 남해왕 3년 봄에 처음 시조 혁거세의 묘당을 세워 사계절로 제사를 지냈는데, 친누이 阿老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했었다.<sup>11)</sup>

위의 기록을 통하여 신라 시조묘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조묘 제사는 사계절로 지냈다고 하는데, 이 모두 왕실 여성에 의해 주관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조묘 제사는 일반적으로 즉위의례로서의 기능한다고 한다.<sup>12)</sup> 그런데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즉위 의례로 보이는 시조묘 제사 시기가 1월이나 2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드물게 7월이 있다. 또한 즉위의례가 아닌 특수한 경우는 4월 시행이 눈에 띈다.

10) 게다가 혁거세거서간과 알명이 '동행'하여 農桑을 권장하였다는 기록도 주목된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17년(B.C.41). “十七年, 王巡撫六部, 妃勸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이는 당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한편 중국의 예로 이미 전국시대부터 여성이 길쌈을 함으로써 남자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남성이 밭을 갈면서 여성은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였으니(『여씨춘추』 권26 사용론, 「상농」. “是故丈夫不織而衣, 婦人不耕而食, 男女貿功, 以長生, 此聖人之制也”),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였다 하겠다.

11)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12) 崔在錫, 「新羅의 始祖廟와 神宮의 祭祀」, 『동방학지』 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35~40쪽; 나희라, 앞의 책, 2003, 94~95쪽.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록으로만 판단한다면 왕이 몸소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즉위이례 혹은 특수한 상황 전후에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4계절 중 3계절은 왕실 여성에 의해 시종 주관되었다고 생각되며, 왕이 몸소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여성의 주관 하에 왕이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sup>13)</sup>

이는 '아로'라는 명칭이 신라 여성들의 이름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일찍이 주목되어왔다. 소위 'ar'계라고 하는 인물들로, 알영, 아로, 아류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이들은 대체로 아로와 같이 제사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들로 보인다. 따라서 왕과 왕비 혹은 왕의 누이가 각각 정치와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sup>15)</sup> 중국 기록에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女誡』에 따르면 후한 대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 齋戒하고 先君에게 알리는데, 마땅히 제사를 계승하고 주관함을 밝히는 것'이라 하였다.<sup>16)</sup> 이렇듯 여성이 제사를 계승하고 주관하는 것은 낮은 일은 아니었고, 당시 시조묘가 세워지고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는 시점과도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여성 지위는 제사권으로서 확립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sup>17)</sup>

이처럼 왕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제사권과 관련된 인물들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몇몇 왕실 여성들은 신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13) 시조묘 제사를 친누이 阿老가 주관한 사실은, 왕실 여성이 왕실 최고 제사를 도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된다. 이는 아래에서 언급할 '阿老'라는 同名 왕실 여성들과 老嫗와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왕실 여성들은 왕과 돌아간 선대왕들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끔 등장하는 老嫗와 달리 왕의 지근거리에서 설득력이 있는 조언을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14) 마립간 시기의 실성마립간의 부인은 '아류', 실성마립간의 딸이자 눌지마립간의 부인도 '아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 '아로'라는 명칭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15) 'ar'계 칭호가 알영을 비롯한 왕실여성으로서 신성한 사제적 직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일 반적인 존칭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알영과 친연성을 가진 존재들인 王母와 王妃, 王女였다(李炫珠, 앞의 논문, 2013, 19쪽). 혹은 'ar'계 왕실 여성은 왕실 제사권의 일부를 분담하였던 존재로도 해석된다(나희라, 앞의 책, 2003, 120쪽).

16) 『女誡』 7, 卑弱.

17) 고대인들은 존재의 모든 형식과 역사적 전통을 제사의 기본사상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모든 사건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는 견해가 母權과 관련하여 제시된 바 있다(Johann Jakob Bachofen, *Das Mutterrecht*, 한미희 옮김, 『모권』①, 나남, 2013, 75쪽).

- B) ① [또는 鷄龍이 祥瑞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이 아니겠는가!]<sup>18)</sup>
- ② 그 처음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에 되었으니 대개 혁거세와 알영 二聖이 나온 바이다. 그러므로 雞龍·雞林·白馬 등으로 일컬으니 계(雞)는 서쪽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여러 天仙으로 하여금 비단을 짜게 하여 緋色으로 물들여 朝服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니 국인들이 이로 인하여 신이한 영험을 알았다.<sup>19)</sup>
- ③ 남해거서간은 또한 차차웅이라고도 한다. … 왕비는 雲帝夫人 [혹은 雲梯라고도 하는데 지금 영일현 서쪽에는 운제산 성모가 있어 가물 때에 기도를 드리면 영험이 있다.]이다.<sup>20)</sup>
- ④ 오래된 뒤에도 부인은 사모하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鵝述嶺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鵝述神母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당이 있다.<sup>21)</sup>

위의 인물들은 시조의 지위에 있거나, 왕비, 혹은 왕의 딸이다. 알영은 서술성모의 현신으로, 운제부인이나 제상의 부인은 성모 혹은 신모로 기억되어 온 듯하다. 또한 왕족 여성으로써 어떠한 명분에 의하여 신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남성 시조마저도 某神으로 기록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시조가 아닌 경우에도 신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신격화는 남성과 달리 종종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기억이 많은 이들로부터 보전된 경우에 기록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여성의 신격화가 남성에 비하여 잘 나타나 있는 이유는 앞서 설

18)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혁거세왕. “乃至雞龍現瑞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听現耶”

19)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其始到辰韓也生聖子爲東國始君, 盖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雞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緋染作朝衣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20)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이남해왕. “南解居西干亦云次次雄. … 妃雲帝夫人 [一作雲梯今迎日縣西有雲梯山聖母祈旱有應]”

21) 『삼국유사』 권1, 기이1, 나물왕 김제상. “久後夫人不勝其慕, 率三娘子上鵝述嶺, 望倭國痛哭而終. 仍爲鵝述神母, 今祠堂存焉”

명한 바와 같이 여성의 제사 주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조묘와 같은 왕실의 제사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 뚜렷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비단 ‘왕실’ 여성이었다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록에 종종 등장하는 老嫗라는 존재에서 알 수 있다.

- ㉠ ① 5년 봄 정월에 용이 알영정(闕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老嫗가 발견하여 기이하게 여기고 거두어 길렀는데 우물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sup>22)</sup>
- ② 고타군(古陀郡)을 지나가는 길에 老嫗의 집에 묵었다. [왕이] 묻기를 “지금 사람들은 국왕을 어떤 군주로 생각합니까?”라 하니, 할머니가 대답했다. “많은 사람이 성인으로 여기지만 저만은 그것의 심스럽습니다.”<sup>23)</sup>

노구는 신성한 존재를 기르는 존재이거나, 왕에게 직언하는 인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왕이 노구의 집에서 묵었다거나, 노구의 말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聖人이라는 왕과 대비되면서 그와 같은 왕의 입지를 부정하기까지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노구는 고대 샤먼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시조묘 제사의 주관자가 여성인 점과 일맥상통한다. 왕실이건 그 밖이건 간에 여성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신성한 존재였다.

神母, 聖母와 같은 존재는 생명의 잉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땅에서 모든 생물이 나고 자라는 것, 인간의 경우에 출산의 담당자가 여성인 점은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 같은 생산과 재생산의 실질적인 담당자로서의 여성은 그들의 생물학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신적 존재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사를 주관하거나, 샤먼으로서 왕실과 사람들에게 조언하였다고 하겠다.

2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B.C.53). “五年,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2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500). “路經古陀郡, 宿於老嫗之家. 因問曰, “今之人, 以國王爲何如主乎.” 嫗對曰, “衆以爲聖人, 妾獨疑之”

이처럼 여성들은 제사를 주관하거나 신성한 존재로서 신라 사회에서 나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와 市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활동 분야는 더욱 넓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대의 市는 본래 祭壇이나 집회장소<sup>24)</sup>, 혹은 신성처(聖所)로서 집단의 최고 제의를 거행하는 장소였다.<sup>25)</sup> 또한 농경의례가 행해지던 곳 역시 市였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나아가서는 제사 물품을 한 곳에 모아서 교환하고 매매를 하는 창고(神創)이기도 하였다.<sup>27)</sup>

이후 市는 중앙집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신성처가 수행하던 창고 기능과 재분배 기능이 분화되어 상업지구로서의 형성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본래의 정무와 창고 기능을 상실하면서 삼국 초기까지는 종교적 장소로 유지되었지만, 세속권력의 정당성을 비호하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지마렵간대의 시사 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市場의 개설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변질된 市를 국가질서 내로 편입시켜 상업지구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sup>28)</sup> 이와 더불어 여성의 활동을 생각해 볼만한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D) 市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모두 婦女들이 한다.<sup>29)</sup>

위의 기록은 『신당서』의 신라 관련 내용이다.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인물로서 여성을 특정하고 있다. 본래 市가 신성처였던 점이라던가, 여성이

24) 姜英卿, 「韓國 古代의 市와 井에 대한 一研究」, 『원우논총』 2, 숙명여대대학원 원우회, 1984, 94~113쪽.

25) 金昌錫, 「한국 고대 市의 原形과 그 성격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한국사연구회, 1997, 73쪽.

26) 위의 논문, 76쪽.

27) 위의 논문, 81~83쪽.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체계가 공납과 조세제도로 발전하였다고 한다(김기흥, 「三國時代 稅制의 성격」, 『국사관논총』 35, 국사편찬위원회, 1992, 99쪽; 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66쪽).

28) 윤재운, 「상업과 시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신라의 산업과 경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268~269쪽.

29)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등이, 신라. “市皆婦女賈販”

사제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왕실 제사를 주관한 점 등과 함께 위의 기록을 연결해보면,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까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제사권을 바탕으로 하여 일찍부터 경제 활동에 전념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에서 시장은 소지마립간 12년(490)에 처음 열렸고, 이후 지증왕 10년(509)에는 東市가 설치되었다고 한다.<sup>30)</sup> 특히 소지마립간대의 관시의 설치 까닭은 여러 지배기구와 귀족·관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일부를 공급하고, 국가의 재정 운영에 補足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sup>31)</sup> 게다가 왕실의 제사나 국가와 개인의 제사 용품과 관련된 재화나 기타 공납물 등도 유통되었다.<sup>32)</sup>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제사와 관련된 여성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행하여 졌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살펴볼 만한 사료는 드물지만 다음의 기록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E) 왕이 육부를 모두 정하고 이를 둘로 갈라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기 部內的 여자를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게 했다.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 큰 부의 뜰에 모여 마포(麻布)를 짜고 밤 10시에 파했다.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의 많고 적음을 가려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어 이긴 편에 사례했다. 이에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를 즐겼으니 이를 嘉俳라 불렀다.<sup>33)</sup>

위의 기록은 지금의 추석의 연원을 알려주는 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34)</sup>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왕녀 두 명의 주관 아래 부의 여자들을 나

30) 김창석은 소지마립간대의 시사 설치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시조신제사가 왕실의 주관하에 치러지면서 중시되고, 종래의 신성처를 포함한 각지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국가질서에 편입한 것으로 보았다. 또 지증왕대의 동시 설치에 市의 전통적 제외집단과 제외권에 대한 세속권력의 지배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창석, 앞의 책, 2004, 59쪽).

31) 위의 책, 92쪽.

32) 위의 책, 50쪽.

3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 “王既定六部, 中分為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續麻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누어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마포를 짜는 직조 노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경쟁하여 마지막에는 술과 음식으로 사례하고, 함께 모여 노래와 춤을 추는 축제의 장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여기서 왕녀는 앞서 살펴본 'ar'계 여성으로서 사제적 직능을 수행하는 인물이라 생각된다.<sup>36)</sup>

여성의 직조 노동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개별 가정의 피복을 만드는 일이었고<sup>37)</sup>, 이는 왕실의 여성도 무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한 달간에 걸친 집단 직조 노동으로써 여성들은 시간을 집약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부내 가정들의 피복을 한 번에 생산하였다. 따라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의 개념도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sup>38)</sup> 따라서 집약적인 한 달간의 노동을 투자하여 다음 해를 반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물품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다음해를 살아가는 노동력이

34) 이에 대하여 여자들에게 대한 일종의 요역으로 보고, 여성들이 하루 종일 사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35~36쪽;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05쪽). 집단 직조 노동이 요역의 일종이었다는 것은 생산된 포를 調의 개념으로 바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김기홍, 앞의 책, 69쪽; 金秉駿, 「秦漢時代 女性과 國家權力-過徵方式의 變遷과 禮教秩序로의 編入-」,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993, 118쪽)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겠지만, 과연 하루 종일 사역에 시달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집단 노동은 기본적으로 개별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코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한편 가배 행사가 6부의 이름을 고치고 賜姓과 관등설치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여성들의 직조역할이 정치제도의 정비과정 속에 함께 진행되었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는 견해도 있어(강영경, 「壁畫를 통해서 본 高句麗 女性의 役割과 地位」, 『고구려연구』 17, 고구려연구회, 2004, 318쪽) 참고가 된다.

35) 특히 가배는 왕녀에게 여성의 공동 길쌈을 통제·관리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런 방식의 노동을 의례화·축제화한 것이다(백동인, 「新羅 嘉俳의 정치적성-위계질서와 성역할의 재생산-」, 『한국고대사탐구』 3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25~26쪽

36) 李炫珠, 앞의 논문, 2013, 17쪽.

37)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한, 「俗饒蠶桑, 善作縑布」, 「知蠶桑, 作縑布」, 「曉蠶桑, 作縑布」 김영심, 앞의 논문, 2010, 21쪽.

38) 『說苑』 권20, 反質, 「凡姦邪之心 飢寒而起, 淫泆者 久飢之詭也. 彫文刻鏤, 害農事者也. 錦纂纂組, 傷女工者也. 農事害, 則飢之本也. 女工傷, 則寒之源也」(무릇 간사한 마음은 굶주리고 추운데서 일어난다. 음일은 오래 굶주려 (남을) 기만하는 것이다. 조문하고 각무하게 하면 농사를 해치고, 비단을 짜고 무늬 베를 짜게 하면 여공(길쌈)을 상하게 한다. 농사를 해치는 것은 굶주림의 본이고, 여공을 상하게 하는 것은 추위의 근원이다.)

재생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다가 부의 뜰에 모여 노동과 경쟁, 가무를 한 점으로 볼 때, 의례(축제)의 역할도 있었다 하겠다.<sup>39)</sup> 부여의 영고나<sup>40)</sup>, 고구려의 동맹<sup>41)</sup>, 동예의 무천<sup>42)</sup> 등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國中이라는 표현은 大部之庭과 상통하고, 음식(음주)과 가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1년간의 생산을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를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신라 여성의 샤먼적 성격도 일면 가지고 있다 생각된다.

제다가 특히 상장례와 관련하여 이러한 집단 직조 노동은 개별 가정에서 필요한 喪服을 구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가족의 인원이 5인일 경우 4인과 죽은 사람의 의복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 노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43)</sup> 참고로 『여씨춘추』에서는 ‘여성의 蠶事를 권하여 고치를 나누어 실을 뽑아 저울질하여 그 공을 명백히 하며 郊廟의 예복을 이바지하여 이 감히 게을리 함이 없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sup>44)</sup>, 이는 직조노동이 제사에 쓰일 의복을 만드는 작업이었음을 알려준다. 귀신을 믿어 천군이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고, 각 별음에 소도를 두고 귀신을 섬기었다는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은<sup>45)</sup>, 그만큼 제사가 韓에서는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포착되었던 예라 하겠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만큼 많은 양의 예복과 음식 등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sup>46)</sup>

39) 이현주,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사림』 31, 수선사학회, 2008, 114쪽.

40)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부여.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41)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고구려.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42)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예.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43) 안현철, 「秦漢時期 婦女노동의 실태와 紡織協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6쪽.

44) 『여씨춘추』 季春紀3, 凡五篇3. “勸蠶事, 蠶事既登, 分繭稱絲效功, 以共郊廟之服, 無有敢墮”

45)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한.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46) 음식에 있어서도 부의 여성들이 참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川前里書石> 原銘(作食人~某某妻 某某夫人)이나 追銘(作食人~某某婦 某某夫人)을 들 수 있다. 천전리는 기본적으로 성소였기 때문에, 이에 행차한 연유는 기원이나 제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작시인으로 기록된 여성들은 제사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음력 8월 15일에는 벼슬아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를 시킨 다거나<sup>47)</sup> 나아가 말과 베를 상으로 주었다고 한다.<sup>48)</sup> 특히 베를 상으로 주었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들의 집단 직조 노동의 결과물은 賞의 역할도 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력 8월 15일은 관리들의 1년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의 기록은 많은 여성들이 이와 관련된 직조물을 준비한 과정을 풀어내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직조물은 재화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49)</sup> 일찍이 弁韓布가 언급된 바가 있고<sup>50)</sup>, 9세기의 기록이기는 하나 鰥寡孤獨에게 곡식과 布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sup>51)</sup> 특히 환과고독에게는 기본적으로 곡식만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布가 언급되었던 이 사례로 볼 때, 포는 곡식보다 가치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염사치 기록에서처럼 진한이 치의 공격이 두려워 적절한 보상을 할 때, 곡식이 아닌 布를 내어놓았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곡식이 재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곡식 역시 보상 물품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과고독에게 지급한 곡식과 布는 공통적으로는 구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각

47)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동이, 신라. “八月望日, 大宴賚官吏, 射”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 신라.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 其日拜日月神.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48) 『복사』 권94, 열전 제82, 신라. “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49) 삼베는 모시와 함께 화폐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林瑩鎮, 「삼베길쌈 技術과 勞動交換組織에 관한 研究-安東布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31쪽). 또한 고려나 조선시대에 비하여 베 한 필의 가치는 훨씬 높았고, 직물은 남성 농업노동의 산물에 비해 결코 낮게 평가되지 않았다(김영심, 앞의 논문, 2010, 21~23쪽). 이 같은 측면에서 추측컨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0) 『삼국지』 권30, 위전 제30 동이전, 한. “鑿因將戶來 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鑿爲譯, 從芻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鑿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毛本, 弁, 作弁, 誤.] 鑿收取直還. 郡表鑿功義, 賜冠幘・田宅”

5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9년(834). “冬十月, 幸巡國南州郡, 存問耆老及鰥寡孤獨, 賜穀布有差”  
비록 직조물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4세기의 기록도 참고가 된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二年, 春, 發使撫問鰥寡孤獨,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賜職一級”).

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전자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음식의 재료이고, 후자는 재물로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직조물이 재화로서의 기능까지 하였다면, 신라 여성들의 집단 직조 노동은 단순한 의례나 월동준비만으로도 볼 수가 없다. 나아가 개별 가정과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력 7월 중순부터 한 달간의 노동은 국가의 화폐 생산 활동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요컨대 생산된 재료(麻)를 바탕으로 이를 재화(麻布)로 재생산하고, 이를 다시 상으로써 나누었던 경제적 활동과 사회 재생산 시스템이 바로 가배의 기능이었다.

이렇듯 여성들의 활동에는 한 가계의 핵심 의례인 조상 제사부터 물품 매매의 전담, 심지어는 화폐 가치를 가진 재화의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생산과 재생산의 담당자가 여성임을 가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사 노동의 담당자 혹은 사제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만 비춰져 왔는데,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이 인정받음으로서 구축된 이미지였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특히 신라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였으며, 결코 차별적인 대우만 받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 3. 新羅 上代 왕실의 가계 재생산 인식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라 왕족 여성들은 남성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역대 왕들의 즉위 기사에 보이는 가계 구성의 서술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 본기나 『삼국유사』 왕력에는 ①某王之 즉위, ②某의 아들(딸), ③어머니는 某夫人 ④왕비는 某夫人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왕계가 이어지면서 ①은 ②로, ④는 ③으로 위치를 바꾸어 서술되어, 신라 王家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父, 母, 妃의 순서로 한 왕의 가계가 서술된 셈이다.

이러한 순서는 즉위한 왕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왕과

더불어 그다음 王者를 생산할 인물이 누구인가를 또한 밝히고 있다. 이는 가계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제 상 어떠한 위계 구조도 찾아볼 수 없음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세대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기 위한 '생산'의 근원이며, 왕비는 다음 세대의 왕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핵심 구성원이다. 따라서 생산과 재생산이 반복되는 구조가 신라 王家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생산의 구조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생산하고, 재생산의 구성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견주어 볼 때, 왕의 어머니나 왕의 아내는 기본적으로 王者 생산과, 王家 재생산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식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

특히 신라 왕실의 가계는 혁거세거서간부터 기록되었는데, 남해차차웅부터 실질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일한 조상으로 기억하였던 바이다. 그리고 남해차차웅부터 비로소 아버지 혁거세와 어머니 알영, 왕비 운제부인의 순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52)</sup>, 시조에 대한 신성화 작업이나 가계 구성원의 삭제와 기억 역시 이때부터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특히나 남해차차웅 3년에 시조묘를 세운 일과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 이렇듯 한 세대의 王家를 구성하는 여성들은 분명한 필요에 의하여 기억되고 또 기록되었는데, 분명히 王家의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성들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기록되었던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왕족 남성이라도 선별적으로 기억된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칠부는 5대조와 祖父·父<sup>53)</sup>, 이사부는 4대조<sup>54)</sup>, 사다함은 7대조와 父<sup>55)</sup>, 김후직은 증조부만이<sup>56)</sup> 기록되어 있는 바가 단적인 예이다.

5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1년(4). “赫居世嫡子也. 身長大, 性沉厚, 多智略. 母闕英夫人, 妃雲帝夫人”

53)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居柒夫[或云荒宗], 姓金氏, 奈勿王五世孫. 祖仍宿角干, 父勿力伊滄”

54) 『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 “異斯夫[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55) 『삼국사기』 권44, 열전4, 사다함. “斯多含, 系出真骨. 奈密王七世孫也, 父仇梨知級滄”

56) 『삼국사기』 권45, 열전5, 김후직. “金后稷, 智證王之曾孫”

이러한 사실은 기록될 만한 이유보다는 기록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도 신라 사회에서 딱히 활약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또한 거칠부나 이사부와 같은 인물들은 왕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왕’과 ‘王家’ 그 자체의 생산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가계에 대한 기억이 왕실로부터 철저히 없었고 고 생각된다.<sup>57)</sup>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가계가 기록되었던 사실 속에서 왕실 여성의 존재가 분명하게 기록된 점은, 그러할만한 명분이 있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명분은 王家의 재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게다가 王者의 생산은 왕실의 필수 불가결한 중대사였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만 결핍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왕실의 재생산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생산과 재생산이다. 따라서 비단 왕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인간들이 목표로 하는 삶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추구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 F) ① 漢祇部の 여자가 한 번에 4남 1녀를 낳았다.<sup>58)</sup>  
 ② 한기부 여자가 한 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으므로 벼 2백 석을 주었다.<sup>59)</sup>  
 ③ 主力公 집의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다.<sup>60)</sup>  
 ④ 인덕 3년 병인 3월 10일에 어떤 민간의 길이(吉伊)라는 여종이 한 번에 세 아들을 낳았다.<sup>61)</sup>

57)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역사학보』 53·54, 역사학회, 1972, 17~35쪽. 이기동은 가계 分枝化의 경향 속에서 이 같은 기억의 소멸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 역시 왕실 재생산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큰 가지 이외의 가계는 점점 잊혀 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 참고가 된다.

5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벌휴이사금 10년(193). “漢祇部女, 一產四男一女”

5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670). “漢祇部女人, 一產三男一女, 賜粟二百石”

60)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2년(743). “主力公宅牛, 一產三犢”

61)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무왕법민. “麟德三年丙寅三月十日, 有人家婢名吉伊一乳生三子”

위와 같이 단태동물인 사람이 한 번에 여러 명의 자식을 생산하였을 경우, 종종 특기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기한 현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쌍태 분만, 흔히 말하는 쌍둥이 출산도 겨우 1%의 확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sup>62)</sup>, 위와 같은 사례의 다태 분만은 더욱 희한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 역시 단태동물인데도 불구하고 ③의 사례처럼 세 마리를 한 번에 낳았던 사례는 인간과 같은 측면에서 특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생산의 多寡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재산이나 가정, 나아가 국가의 재정과 노동력이 증대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비록 제시한 사료가 7세기 이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6세기 초 지증왕이 순장 금지 조치를 내리고<sup>63)</sup> 우경을 실시한<sup>64)</sup> 점에서 볼 때, 그 이전부터 농업을 위한 노동력과 축력의 증시는 기본적으로 신라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산과 풍요는 기본적인 기원의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 낸 인물들에게 곡식을 상으로 내리기까지 한 것이다. 나라에서는 양으로 볼 때 1~2백석으로 대단히 많은 곡식을 수여하였다. 이는 포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복지 정책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 가계보다 많은 자식을 키워내기 위하여 몇 배의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가정의 재생산과도 관련이 깊다 하겠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여 조세를 부담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음식을 먹는 일은 재생산을 위한 투자이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가정이든 국가든 한 집단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62) 인간의 경우 쌍태분만(쌍둥이 출산)의 발생빈도는 연구에 따라 0.98%, 1.05%, 1.0%, 0.96%로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1% 남짓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洪元杓, 『雙胎妊娠과 單胎妊娠의 産科의 特性』,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쪽). 소의 경우 종에 따라 쌍태생산(쌍둥이 출산)이 0.4~8.9%의 확률로 이루어졌는데, 평균 3%를 넘기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曹南基, 『소에 있어서 雙胎生産에 관한 研究』, 『농업연구』 1, 농업학회, 1986, 172쪽).

6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502). “下令, 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6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502).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이러한 재생산의 인식은 문헌 자료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발굴된 실물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토우가 바로 그를 대표하는 물건이라 하겠는데, 신라의 무덤(황남동 소형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체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생산과 재생산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를테면 남성이 과장된 성기를 드러낸 모습이라던가<sup>65)</sup>, 여성의 성기가 표현된 인물상이라던가, 심지어는 성교하는 모습을 드러낸 토우도<sup>66)</sup>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나, 이와 완전히 반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을 빚은 토우도 있다.<sup>67)</sup> 함께 출토된 동물 토우 역시 각각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sup>68)</sup>,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가진 토우는 그 의미가 해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다. 신라인들은 토우를 제작함으로써 이러한 재생산의 중요성과 그 인식이 가장 담백하게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아래에 제시할 『삼국유사』 기이 지철로왕 기록에 반영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G) 왕은 陰莖의 길이가 1척 5촌이나 되어 훌륭한 배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신을 三道에 보내 배필을 구하였다. 사신이 牟梁部에 이르렀는데, 冬老樹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크기가 북만한 커다란 동 한 덩어리를 양쪽에서 물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어떤 소녀가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모량부 相公의 딸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다가 은밀히 숲속에 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집을 찾아 그녀를 보니 신장이 7척 5촌이나 되었다. 이 사실을 왕께 갖추어 아뢰자 왕은 수레를 보내 그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 들여 황후로 삼았고, 군신들은 모두 경하였다.<sup>69)</sup>

65) 이는 성기 숭배 사상으로 다산과 풍요한 생산력에 대한 갈구와 관련된다고 한다(이난영, 『신라의 토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75쪽; 김선주, 「여성의 몸, 숭배와 통제 사이」,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2011).

66) 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표현 방법이 크기로서 대변된 것이다(이난영, 앞의 책, 71~72쪽. 이는 다음으로 제시되는 사료 G)의 지증왕비가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되어 주목된다.

67) 자세한 토우의 형태는 송의정·김현희·안경숙,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를 참고 바람.

68) 위의 책, 190~191쪽.

위의 사료에는 지증왕의 음경 길이가 표현되었고, 그에 걸맞은 배필이 없어서 복만한 똥을 눈 큰 키의 여자를 찾아 황후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만큼 적나라하게 왕의 생식기를 표현한 사례는 없고, 실제 수치도 믿을 수 없다. 물론 황후의 똥 크기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후대에 윤색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필 지증왕의 기록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금까지 지증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는데, 적어도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즉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게다가 지증왕이 64세의 나이에 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꾸며진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생식기는 생물학적 재생산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야기는 정력적이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나이의 지증왕의 실체와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왕비의 경우 지증왕의 생식기와는 달리 배설물로서 신성성이 부각되었다.<sup>70)</sup> 배설물의 크기로서 여성의 생식기관 역시 그러하리라는 일종의 은유법이다. 또한 이러한 배설물이 일종의 인분 시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끔 한다. 시비법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초보적으로 행하여졌다고 생각되며<sup>71)</sup>, 『범승지서』나 『제민요술』과 같은 중국 농서의 고려 유입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sup>72)</sup> 『제민요술』의 糞田과 관련된 기록에는 나귀·말똥 및 사람오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비롯한 여러 비료들은 화곡 작물에도 사용되었지만 채소류와 과실수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sup>73)</sup> 주목되고, 또한 『범승지서』에는 ‘무릇 경작의 근본은 농시를 좇아

69) 『삼국유사』 권1, 기이1, 지철로왕. “王陰長一尺五寸難於嘉耦發使三道求之. 使至牟梁部, 冬老樹下見二狗嚙一屎塊如鼓大爭嚙其兩端. 訪於里人, 有一小女告云, 此部相公之女子洗澣于此隱林而所遺也. 尋其家檢之身長七尺五寸. 具事奏聞, 王遣車邀入宮中封爲皇后, 群臣皆賀”

70) 여기서 똥은 국왕의 짝으로 걸맞은 배우자의 분신이자 성적 매개물로 이해된다. 또한 다산과 풍요의 등가적 상징물이다. 특히 똥은 신성시되거나 배설 기능이性と 동일시되거나 밀접하게 여기는 역사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구사회, 「신라의 성기 숭배와 지증왕의 음경」,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4~125쪽).

71)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1년 4월. “春早與糞田同”

72) 魏恩淑, 「전시과 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4, 2003, 329쪽.

73) 최척경,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 생태학』, 세창출판사, 2016, 113~114쪽.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시비와 保濕에 힘쓰고, 일직 김매고 일찍 수확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니<sup>74)</sup>, 두 농서가 고려에 유입되었다면 시비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였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비료는 농토에 대한 투자이며, 연작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이로써 인간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확대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게끔 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조 신성화와는 결이 다르지만 비상식적인 기술로써 지증왕과 그 왕비를 기억하는 방법은,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집약되었으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생물학적인 재생산 구조의 인식이 왕실의 신성성과 등치되면서 그에 따라 기록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지증왕 대에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신라 사회의 단면과 『삼국유사』 편찬시기의 인식이 교묘하게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2·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실 여성은 왕의 파트너로서 기억되었고, 왕실의 재생산과 집단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의 재생산을 도모하였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왕실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경제적 재생산의 주체였다 하겠다. 하지만 여성이 왕위에 오른 경우에는 이전의 왕실 여성이 지닌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 포착된다. 이를 장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善德王과 眞德王의 즉위 배경

한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신라에서만 여성이 즉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신라 상대의 선덕왕, 진덕왕과 하대의 진성왕이 여성으로서 즉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자의 두 인물은 聖骨이라는 신라의 왕족 신분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주목되어 왔다. 왜냐하면 두 여성 왕을 끝으로 聖骨이 아닌 眞骨이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이다.<sup>75)</sup> 뿐만 아니라 善德王

74) 위의 책, 76쪽.

7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진덕왕 8년.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

(이하에서 언급하는 선덕왕은 모두 신라 27대 왕)은 ‘聖骨男盡’의 명분 아래에 최초로 여성으로서 즉위한 인물이었기에 더욱이 聖骨의 소멸과 관련하여 여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76)</sup> 지금까지는 선덕왕이나 진덕왕을 비롯한 진평왕계의 인물들이 불교의 眞種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眞骨보다 격상된 聖骨 신분을 가졌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의 여성 차별적인 사회 경향에 따라 聖骨 신분으로만 왕족 여성의 지위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주변 眞骨 집단의 비호 속에서 선덕왕의 즉위를 파악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sup>77)</sup>

이같이 종래의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신라 사회에서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채로 선덕왕과 진덕왕의 즉위가 논하여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살핀 신라 여성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지위로서 도출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즉위를 논하고자 한다.

앞서 맨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의 왕족 여성은 기본적으로 왕과 혼인을 한 왕비의 경우, 혹은 그와 더불어 왕의 어머니인 경우에 특기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왕실의 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담당자로서 인식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생물학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과 반대로 신라 상대의 두 여성 왕은 후손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왕실의 재생산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점은 결국 聖骨 신분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만 선덕왕의 경우에는 왕실 재생산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기록이 있다.

武烈至永王，謂之眞骨”

『삼국유사』 권1 왕력. “已上中古聖骨，已下下古眞骨”

76) 이는 친족문제, 모계문제, 혼인문제 등으로 좌우되는 왕위 계승의 정치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동륜계와 사륜계로 나뉘는 문제라던가, 부모의 신분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나아가 國人들의 의한 즉위가 가지는 의미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추구된 바 있다(金昌謙, 『新羅 善德女王的 王位繼承에 대한 論議』, 『한국학논총』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44~54쪽).

77) 金德原, 『新羅中古政治史研究』, 경인문화사, 2007, 153쪽을 참고 바람.

H) 제27대 선덕여왕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며, 김씨이다. 성골남자가 다하여, 까닭에 여자가 왕이 되었다. 왕의 배필은 飲葛文王이다.]<sup>78)</sup>

위의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에는 선덕왕에게 배필이 있었음이 서술되어 있다. 배필은 飲갈문왕인데, 飲이 飯과 유사한 글자이며, 갈문왕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평왕의 친동생 중 한 명으로 보인다.<sup>79)</sup> 따라서 선덕왕은 자신의 숙부와 혼인을 하였던 셈이다. 그런데 진평왕의 친동생들은 622년에는 사망하였다고 생각되며<sup>80)</sup>, 둘 중 누가 되었든 선덕왕과의 혼인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겠고, 선덕왕은 632년 즉위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혼인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기록과 달리 『삼국유사』 기이의 지기삼사에는 마치 선덕왕에게는 배필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 1) ① 왕이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바로 당제(唐帝)가 나의 짝이 없음을 희롱한 것이다.<sup>81)</sup>
- ② 앞 임금 때 당에서 가져온 모란꽃의 그림과 꽃씨를 덕만에게 보였는데, 덕만이 말하기를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는 까닭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가 뛰어난게 아름다우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

78)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二十七善德女王 [名德曼. 父真平王, 母麻耶美人, 金氏. 聖骨男盡, 故女王立. 王之匹飲葛文王]”

79) 武田幸男, 「新羅骨品體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5, 196쪽의 주6; 문경현, 「上中古期 新羅六部の 史的 考察」,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1993, 160쪽; 「弑王說과 善德女王」,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1999, 285~286쪽;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69쪽.

80) 윤진석, 「5~6세기 신라 사탁부 갈문왕」,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25쪽.

81)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 “王曰 “畫花而無蝶知其無香斯, 乃唐帝欺寡人之無耦也”

기 마련입니다. 이 꽃은 무척 아름다운데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향기가 없는 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sup>82)</sup>

위의 사료로 보아 선덕왕은 혼인 상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선덕왕 즉위조의 가계도 일반적인 부-모-배우자 순에서 마지막 배우자만 결락되어 있어 남편이 없었다고 파악하게끔 기록되어 있다. 다만 『삼국유사』의 지기삼사는 재위 중의 일로 기록한 반면에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선덕왕이 즉위하기 이전의 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후자의 기록에는 배필의 부재를 알만한 근거가 없다.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삼국유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본래 선덕왕에게 음갈문왕이라는 남편이 있었으나 즉위 전에 사망하였고, 즉위 후에는 배필이 없었음을 당제로부터 희롱당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선덕왕이 성조황고라는 칭호를 가졌던 사실 바로 다음에 모란꽃 이야기가 나오고 희롱 이야기도 삭제된 것으로 보아, 선덕왕의 장점만을 기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지만 모란꽃 이야기도 본래는 재위 중에 있었던 일이나, 선덕왕이 즉위 이전부터 이러한 총명함을 지녔으므로<sup>83)</sup> 즉위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논리로써 윤색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적어도 즉위 이후에는 선덕왕에게 남편이 없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선덕왕은 재혼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왕실의 재생산에 힘쓰지 못했던 것 같다. 이미 聖骨 남자가 다하였기 때문에 그와의 혼인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王家의 지속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재생산이 일어날 수 없었고, 점차 축소 재생산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겠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점만 빼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王家의

8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년(632). “前王時, 得自唐來牡丹花圖并花子, 以示德曼, 德曼曰, 此花雖絕艷, 必是無香氣.” 王笑曰, 爾何以知之. 對曰, 畫花而無蝶, 故知之. 大抵女有國色, 男隨之, 花有香氣, 蜂蝶隨之故也. 此花絕艷, 而圖畫又無蜂蝶, 是必無香花”

83) 여성의 예언은 남성의 예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지만 종종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제사와 제례의 보존에 있어 더 보수적이라는 견해도 본 장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Johann Jakob Bachofen, 앞의 책, 76쪽).

재생산이라는 인식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聖骨 신분을 고수 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한다면, 생물학적 재생산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추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곧 불교 교리의 재생산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기록이다.

- J) ① 분황사(芬皇寺)가 완성되었다.<sup>84)</sup>
- ② 넷째는 용궁 북쪽[지금의 분황사(芬皇寺)이다. 善德 갑오에 처음 개창되었다.]이요, 다섯째는 사천미(沙川尾) 지금의 영묘사(靈妙寺)이다. 선덕왕 을미(乙未)에 처음 개창되었다.<sup>85)</sup>
- ③ 3월에 황룡사탑(皇龍寺塔)을 창건하였는데, 자장(慈藏)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sup>86)</sup>
- ④ 신라 제27대 선덕왕 즉위 5년, 貞觀 10년 병신에 자장법사가 당나라에 유학하여 곧 오대에서 문수보살이 불법을 주는 것을 감응하여 얻었다. 문수가 또 말하기를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刹利種)왕으로 미리 佛記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이 있어 東夷 共工의 종족과는 같지 않다.”<sup>87)</sup>
- ⑤ 셋째는 왕이 아무런 병도 없는데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짐은 모년 모 월일에 죽을 것인즉, 나를 도리천(仞利天)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하였다. …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호대왕(文虎大王)이 사천왕사를 왕의 무덤 아래에 창건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천(四天王天)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제야 대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sup>88)</sup>

위의 기록들은 선덕왕과 불교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

8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3년(634). “芬皇寺成”

85) 『삼국유사』 권3, 흥법3, 아도기라. “四曰龍宮北 [今芬皇寺. 善德甲午始開], 五曰沙川尾 [今靈妙寺. 善德王乙未始開]”

8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645). “三月, 創造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

87)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구층탑. “新羅第二十七善德王即位五年, 貞觀十年丙申慈藏法師西學, 乃於五基感文殊授法. 文殊又云, “汝國王是天竺刹利種王, 預受佛記故別有因緣, 不同東夷共工之族”

88)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 “三王無恙時謂群臣曰,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仞利天中, … 後十餘年文虎大王創四天王寺於王墳之下. 佛經云四天王天之上有仞利天, 乃知大王之靈聖也”

다. 사료 ①,②는 분황사와 영묘사가 개창되었던 사실을, ③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창건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④는 국왕, 즉 선덕왕이 찰리중(석가와 같은 종족)이라는 점을, ⑤는 선덕왕의 장지와 관련하여 불교적 세계관이 투영된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습은 진흥왕이나 진평왕의 불교 관련 활동들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게다가 석가와 같은 종족이라고 한 점은 아버지 진평왕의 이름이 백정(석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석가의 어머니)인 것과<sup>89)</sup> 무관하지 않다. 또한 황룡사 9층탑은 9개의 외국을 지정하여 호국 불교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는데, 이로 볼 때, 선덕왕이 자장과 함께 불교 교리로써 정치적 이념을 강화시켰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은 선덕왕의 모습은 일견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여성 成佛者와 같아 보인다.<sup>90)</sup> 또한 이렇게 成佛한 인물로 기록된 것에서 우리는 선덕왕이나 진덕왕에게 배필이 없었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석가모니처럼 성불하여, 가계의 재생산에는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은 것이다.<sup>91)</sup> 그보다도 불교의 진리를 설파하는 데에 힘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왕실 여성의 불교적 행위와도 닮아있다.

- K) ① [왕비는 사축부인이고, 출가한 범명은 법류(法流)이며, 영흥사에 머물렀다.]<sup>92)</sup>
- ② 『책부원귀』에는 “[법흥왕의] 성은 모(募)이고, 이름은 진(秦)이라고 하였다. 처음 역사를 일으켰던 을모년에 왕비도 또한 영흥사를 세우고 史氏의 유풍을 사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범명을 묘법이라고 하고 또한 영흥사에 살더니, 몇 해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8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1년(579). “眞平王立. 諱白淨 … 妃金氏摩耶夫人, 葛文王福勝之女”

90) 조경철,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136~139쪽.

91) 이에 대하여 巫女는 원칙적으로 신과 결혼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편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신라의 여성 왕들이 무녀왕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주목된다(나희라, 앞의 책, 2003, 126쪽). 따라서 신라 여성들의 모습은 노구라던가 무녀, 여성 사제라는 이미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92) 『삼국유사』 권1, 왕력. “妃己丑夫人, 出家名法流, 住永興寺”

- ③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法雲이라고 칭하다가 죽었다. 왕비 또한 그것을 본받아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서 머물렀다.<sup>93)</sup>

위의 사료는 법흥왕비와 진흥왕비가 모두 승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왕비가 영흥사를 세웠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은 자신의 남편 왕과 같이 捨身을 하였는데, 이들의 사신은 자못 여성의 종교적 직능이 상대 초부터 인정되어 왔던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남성의 승려(종교적 직능을 가진 인물)화는 불교 공인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출가하여 僧尼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던 점도, 국가의 통제 하에 남성과 여성이 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 특히 남성의 출가가 허락된 점에 초점이 두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老嫗들이 이미 사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왕실 여성 역시 제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老嫗들은 불교 공인 이후 점차 老翁과 같이 남성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sup>94)</sup>

이처럼 여성이 불교 교리에 몸을 담거나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례는 비단 신라에만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백제 무왕대에 미륵사를 세우고 탑에 사리를 봉안하였던 인물로 사택적덕의 딸을 들 수 있다. 그는 무왕의 왕후로서 재물을 내어 불법을 기원하였다.<sup>95)</sup> 이는 기본적으로 사택씨라는 백제의 고위 귀족의 지위에서 그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고, 충분한 종교적 이해가 뒷받침되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인 초기에는 왕실을 위주로 사찰이 조영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불교 공인 이전에는 토착 신앙이나 조상 제사를 하

9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37년(576). “至末年祝髮被僧衣, 自號法雲, 以終其身. 王妃亦之爲尼, 住永興寺”

94) 崔光植, 「三國史記 所在 老嫗의 性格」, 『사총』 2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81, 22~23쪽.

95)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金製舍利奉安記〉 “百濟王后佐平沙七積德女種善因於曠劫受勝報於今生撫育萬民棟梁三寶故能謹捨淨財造立伽藍以己亥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

는 사당의 건축이나, 왕실에서는 시조묘나 신궁의 보수 등에 상당한 공력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였거나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가정이든 왕실이든 간에 여성에 의한 재산 축적이 도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나아가 불교 공인 이후 토착신앙과 불교의 습합과정 속에서 서서히 불교 교리가 힘을 얻어 퍼져나가는 가운데, 여성들이 소유한 경제력이 불교에 투입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선덕왕이나 진덕왕의 경우에는 석가족으로서 기억되었기 때문에, 불교가 융성해지고 발전해가는 가운데 신적 존재로 부각되었다고 생각된다. 진덕왕은 특히 ‘손을 내리면 무릎까지 닿는다’고 하여, 그의 생김새가 부처와 전륜성왕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三十二相 중 하나인 正立手摩膝相과 일치한다.<sup>96)</sup> 결국 선덕왕·진덕왕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모습을 가진 존재였다. 이들의 활동은 불교 공인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던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선덕왕이 지은 사찰 중 분황사는 향기가 없는 모란꽃과 대응되고 있다.<sup>97)</sup> 향기가 없는 꽃은 곧 배필이 없는 여인을 이르는 말로 해석되었는데, 선덕왕은 실제 배필을 구하지 않고 사찰을 조영하여 그 이름을 분황이라 하였다. 이는 곧 불교적인 교리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찰을 세운 것이며, 그러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향기가 나는 왕임을 자처한 것이라 해석된다. 나아가 불교 교리의 확대를 추구한 점은 생물학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聖骨의 왕실을 眞骨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왕실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眞骨은 聖骨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고, 처음으로 眞骨로서 왕위를 계승한 김춘추도 본래 聖骨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96) 龍樹, 『대지도론』 4권(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대지도론 K.549(14-493)), 184쪽.

97)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79~80쪽. 한편 김선주, 김태식은 모란꽃 일화를 『수이전』과 관련하여 9~10세기 무렵 생성되었다고 보았다(김태식,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신라사학보』 30, 신라사학회, 2014, 273~287쪽; 김선주, 「善德王 지기삼사(知幾三事)의 형성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228~231쪽). 그런데 9~10세기 당시에 어떤 이유로 하필 모란과 선덕왕을 연결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전적으로 따르기는 어렵다.

聖骨 남자가 다하였다고 더 이상 없는 聖骨 신분을 도출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眞骨 계승을 추구하여 불교로서 그를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한편 선덕왕이나 진덕왕의 행적도 여성의 織造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L) 제28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친히 태평가를 짓고 비단을 짜서 수놓아 사신으로 하여금 당에 가서 이것을 바치게 하였다. 당나라 임금이 기뻐하며 그것을 포상하고 계림국왕으로 고쳐 책봉하였다.<sup>98)</sup>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진덕왕은 직접 비단을 짜서 수를 놓는 등의 직조 활동을 하였다. 이는 유리왕대의 가배에서 왕녀가 주관하여 부의 여자들이 길쌈을 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단순히 왕녀가 주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조 활동을 같이하였으리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분황사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함에서는 구슬, 가위, 바늘, 침통 등이 발견되었는데,<sup>99)</sup> 이는 선덕왕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으로 대표되는 길쌈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가배의 직조 노동을 왕녀가 주관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선덕왕 역시 왕녀였기 때문에 음력 7월 중순부터 8월 15일까지 직조 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앞의 B) ②의 기록에서는 선도성모가 천선에게 비단을 짜고 염색하게 하여 남편에서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였는데<sup>100)</sup>, 이는 일반 여성이

98)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덕왕. “第二十八真德女王即位自製太平歌織錦爲紋命, 使往唐獻之. 唐帝嘉賞之改封爲羅林國王”

9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편, 『분황사: 발굴조사 보고서 I 본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71쪽.

100) B) ②의 기록에 보이는 선도성모는 도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름이다. 이는 시조모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라의 서술성모라는 원형적인 이름으로 불린 존재와 상통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도성모는 佛事와 연관되어 있고, 신라 중고기에 시조모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된 인물이었다고도 이해된다(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010, 12~13쪽). 특히 앞서 언급한 운제산 성모나, 치술신모 등에서 보듯이 오랫동안 신라의 국모로 인식된 존재가 서술산 신모이며 이에 의하여 시조의 출생담도 본래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하정용, 『三國遺事』 所載 山

나 왕실 여성이 모두 직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sup>101)</sup> 또한 ‘聖母’와 같은 존재가 일찍이 신라 왕실 여성과 등치되고 있는바, 선덕왕이나 진덕왕 같은 여성 왕도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신성성이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덕왕이나 선덕왕이 전적으로 길쌈 행위를 담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록이나 출토 유물이 가리키는 바는 ‘여성’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선덕왕·진덕왕이 일반적인 남성 왕이 지니지 않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은 현존하는 어떠한 기록에서도 하찮게 치부되거나 무시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의 직조 활동이 가지는 의미 역시 여성 왕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으로서 즉위한 인물들은 그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여성의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구축되어 온 사제적 이미지, 경제 활동의 담당자 등의 모습을 그대로 이용하되, 가계 재생산보다는 사상의 확대와 전파, 특히 불교 교리의 생산과 재생산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상대 왕실의 여성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신라 사회의 재생산 구조와 여성의 즉위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 사회는 발전과 지속을 위하여 재생산 구조를 구축해놓았던 것으로

---

神關係記事와 그 性格에 대한 一考察, 『종교와 문화』 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146쪽), 선도성모의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 색채로만 구별할 수 없다. 요컨대 신라의 독자적 종교습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드러나는 단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金宅圭, 「新羅上代の 土着信仰과 宗教習合」,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215쪽).

101) 김영심, 앞의 논문, 2010, 12쪽.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왕실 여성이 王者를 생산하고, 그의 어머니로서 기억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들도 선별적으로 기억된 흔적들로 보아, 그와 대비되어 기재 순서에 지키며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여성들의 존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사람(노동력)의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신라에서 유난히 많이 출토되었던 남성, 여성 토우나 성교 토우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한편 신라 왕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제적 성격을 지녔으며, 그에 따라 왕실 제사를 주관하여 왕실 내 지위를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왕실 여성의 이미지는 신라 사회의 여성이 가지는 이미지로서 재생산되어 老嫗로 표현되는 인물들도 등장하여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신라 왕실과 部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도 주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정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길쌈 노동은 겨울을 나는 생존의 지속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길쌈 노동의 결과물인 布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나아가 국가의 재정과도 관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제사를 주관하였던 점 역시 길쌈 노동 후의 가배 축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라에서 여성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을 파악한 결과, 여성들의 종교적, 경제적 활동으로 말미암은 이미지들이 여성 왕의 즉위 전후로 적용되어, 그 지위를 뒷받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왕들이 생물학적 재생산에 실패하였던 점이 그들의 지위를 흔들만한 주요 요소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에 불교 교리에 대한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 힘썼기 때문이었다. 불교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였을 텐데, 이는 이전부터 제사와 경제의 담당자로서의 여성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선덕왕의 경우 배필이 없음을 희롱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분황사'를 건축하여, 왕

실 가계의 지속보다 불교 교리의 지속과 재생산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聖骨 신분은 소멸되었지만 眞骨 신분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는데, 이는 眞骨 신분이 불교를 통한 왕실의 신성화 작업과 연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북사』 『신당서』 『수서』 『삼국지』 『대지도론』  
 『여씨춘추』 『說苑』 『女誡』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金製舍利奉安記〉 〈川前里書石〉

### 2. 논저

강영경 외,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국사편찬위원회 편,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2011.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金德原, 『新羅中古政治史研究』, 경인문화사, 2007.  
 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이난영, 『신라의 토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정현백 외 5명,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 무늬, 2016.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주진오 외 5명,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_\_\_\_\_, 『한국 고대 국가제도와 정치』, 혜안, 2018.  
 최덕경,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통 생태학』, 세창출판사, 2016.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Johann Jakob Bachofen, *Das Mutterrecht*, 한미희 옮김, 『모권』①, 나남, 20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편, 『분황사: 발굴조사 보고서 I 본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송의정 · 김현희 · 안경숙,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  
 姜英卿, 「韓國 古代의 市와 井에 대한 一研究」, 『원우논총』 2, 숙명여대대학원

- 원우회, 1984.
- \_\_\_\_\_, 「壁畵를 통해서 본 高句麗 女性의 役割과 地位」, 『고구려연구』 17, 고구려연구회, 2004.
- \_\_\_\_\_, 「한국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6, 한국여성사학회, 2007.
- 구사희, 「신라의 성기 승배와 지증왕의 음경」,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김기흥, 「三國時代 稅制의 성격」, 『국사관논총』 35, 국사편찬위원회, 1992.
- 金杜珍, 「한국 古代 女性의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 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010.
- \_\_\_\_\_, 「善德王 지기삼사(知幾三事)의 형성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 金秉駿, 「秦漢時代 女性과 國家權力-過徵方式의 變遷과 禮教秩序로의 編入-」,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993.
- 김영심, 「혼인습속과 가족구성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女性」,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_\_\_\_\_, 「한국 고대사회 女性의 삶과 儒教」, 『한국고대사연구』 30, 한국고대사학회, 2003.
- \_\_\_\_\_, 「한국 고대사회 女性의 생산활동」, 『한국사연구』 149, 한국사연구회, 2010.
- 김정선,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金昌謙, 「新羅 善德女王的 王位繼承에 대한 論議」, 『한국학논총』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金昌錫, 「한국 고대 市의 原形과 그 성격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한국사연구회, 1997.
- 김태식,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신라사학보』 30, 신라사학회, 2014.
- 金宅圭, 「新羅上代の 土着信仰과 宗教褶合」,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 문경현, 「上中古期 新羅六部の 史的 考察」,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1993.
- \_\_\_\_\_, 「弑王說과 善德女王」,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1999.
- 백동인, 「新羅 嘉俳의 정치성 -위계질서와 성역할의 재생산-」, 『한국고대사탐구』 3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 안현철, 「秦漢時期 婦女노동의 실태와 紡織協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魏恩淑, 「전시과 체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4, 2003.
- 윤재운, 「상업과 시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신라의 산업과 경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 윤진석, 「5~6세기 신라 사탁부 갈문왕」,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역사학보』 53·54, 역사학회, 1972.
- 이상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 이현주,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사림』 31, 수선사학회, 2008.
- \_\_\_\_\_, 「新羅 王室女性의 稱號變遷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林瑩鎭, 「삼베길쌈 技術과 勞動交換組織에 관한 研究-安東布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全虎兌, 「韓國 古代의 女性」, 『한국고대사연구』 12, 한국고대사학회, 1997.
- \_\_\_\_\_,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역사와 경계』 108, 부산경남사학회, 2018.
- 조경철,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 曹南基, 「소에 있어서 雙胎生産에 관한 研究」, 『농업연구』 1, 농업학회, 1986.
- 주보돈,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계명사학』 21, 계명사학회, 2010.
- 채미하,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 崔光植, 「三國史記 所在 老嫗의 性格」, 『사충』 2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81.
- 崔在錫, 「新羅의 始祖廟와 神宮의 祭祀」, 『동방학지』 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 하정용, 「『三國遺事』所載 山神 關係記事와 그 性格에 대한 一考察」, 『종교와 문화』 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 洪元杓, 「雙胎妊娠과 單胎妊娠의 産科的 特性」,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武田幸男, 「新羅骨品體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5.

<Abstract>

## Awareness of Reproduction of the Early Period of Silla Royal Family and the Background of the Women's Conquest

Lee, Dong-Yun

In ancient society, women are key members of reproduction. It is because it has been active in the economic field as well as in the subject of biological production. In particular, many traces of the role of the royal women of Silla were found. Aro(阿老), who organized the Sijomyo(始祖廟) rite, and women with the same name, show the priesthood of women in the early Silla society.

The main theme of this rite also has an organic relationship in the market. The original appearance of the market was originally a sanctuary and a place for the distribution of all kinds of goods related to it. If you understand this along with the record of women buying and selling goods in the market, and the priestly nature of women, you can easily identify the status of women in Silla society. Furthermore, these figures were also associated with the accession of King Seondeok(善德王) and Jindeok(眞德王). However, the two queens are not very relevant to biological reproduction, and instead, their images have been confir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reproduction of Buddhist doctrines.

\* Key Words: Reproduction, Silla women, King Seondeok(善德王),  
King jindeok(眞德王), women's Accession

· 논문투고일: 2019년 12월 3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7일